

플라톤, 어떻게 읽을 것인가?

-19, 20세기 플라톤 연구 동향을 출발점으로-

김 진 (경희대)

주제분류 고대철학, 해석학

주요어 플라톤, 플라톤 연구, 해석, 대화, 소크라테스적 대화, 대화 논증술(dialektikê), 대화드라마적(dialogdramatisch), 논박(Elenchos), 문학적 형식.

요약문

플라톤의 대화편들은 플라톤의 당대와 그의 사후이래로 각 시대나 사상가들에 의해 매우 다양하고 상이하게 해석되어 왔다. 그것의 다양성과 상이성은 물론 각 시대나 사상가들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정치적 배경의 다양성과 상이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플라톤 저작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과 상이성은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자들의 저서에 대한 이해에서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해석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플라톤은 대화편을 서술했으며 그 대화편은 당시의 비극이나 희극의 텍스트였던 희곡의 형식, 즉 문학적 형식을 띠고 있다. 철학의 영역에 속하며, 수많은 의미심장한 철학적 논구들로 구성되어 있는 저서가 대화나 희곡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저서에 대한 이해는 사실상 다양한 해석의 문제들을 낳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해석학적 문제에 봉착해 있는 플라톤 대화편에 대한 19, 20세기의 주요한 연구 방향들을 개관하며 21세기를 맞이하는 현대의 플라톤 해석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나아가 플라톤이라는 저자, 철학자가 자신의 대화편들에서 추구했던 의도에 가장 근접해 있는 플라톤 대화편 해석의 원칙들을 모색해 본다. 필자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자신의 대화편들에서 추구했던 의도에 가장 근접해 있는 해석의 원리를 2장에서 소개하는 현대 플라톤 해석의 조류들의 극복을 통해 이끌어 내며, 이를 “대화드라마적(dialogdramatisch)”이라 칭한다. 대화드라마적 해석 방법의 원칙은 플라톤 대화편을 하나의 완결된 문학작품으로 보아 대화편들에 나타나는 각 철학적, 문학적 요소들을 빠짐없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

철학탐구 제19집

이다. 이를 위해 해석자는 첫째 대화편의 기본적인 철학적 요소인 ‘대화’의 기본 형식, 즉 ‘질문’과 ‘대답’의 요소를 주목·분석하며, 둘째 대화자체의 내재적인 형식인 ‘대화논증술(dialektikè)’을 분석하고 일반화하며 나아가 대화논증술적 대화(dialektische Dialoge)의 실천적 규칙들을 재구성해야 하며, 셋째 각 대화편을 완결된 일회적인 통일적 전체로 보아 대화편에 설정되어 있는 다양한 문학적 요소들의 역할들을 찾아내고 이를 대화편 해석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대략 2700년이라는 서양철학의 역사는 각 시대마다의 독특한 사회, 문화 그리고 경제적인 특징에 의해 변화되는 각 시대의 철학사상의 다양한 내용과 구조 그리고 방법들을 보여준다. 이러한 각 시대의 철학사상의 다양성은 그 시대에 관건이 되고 주요한 탐구의 대상이 되는 그 이전 철학사상의 연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시대적 관심사에 구애됨이 없이 항상 읽혀지고 논의의 대상이 되는 저작들을 우리는 흔히 고전이라 부른다. 서양 철학사에 있어 이러한 고전의 대표적인 것의 하나로 플라톤의 저작들을 꼽는다면 아마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플라톤의 작품들을 읽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의 다양한 답변들이 주어진다.

이러한 플라톤 저작 이해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그 이유가 설명될 수 있는데, 첫째 플라톤 철학의 작용영향사적 관점, 둘째 플라톤 저작의 문학 장르적 관점, 그리고 셋째 플라톤 대화편이 지닌 독특한 내적 형식의 관점이 그것이다. 첫 번째의 관점은 말 그대로 플라톤 철학이 전통적으로 시대마다 미친 철학적 내용의 산물이 후대의 플라톤 저작의 해석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관점이고, 두 번째는 플라톤 대화편이 지닌 독특한 문학적 형식이 플라톤이 자신의 대화편에서 나타내려고 했던 철학적 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점이다. 세 번째는 플라톤이 ‘대화’라는 형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저작에서 개진하고 있는 철학적 형식과 관련되어진 관점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관점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관점에서¹⁾ 고찰될 수 있는 플라톤 저작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방향들을 우선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나름대로 플라톤 연구의 주요한 방향을 이끌었던 플라톤 해석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19, 20세기 플라톤 연구 동향

1) 첫 번째 관점에서 본 플라톤 저작의 이해에 관하여는 줄고 2006 참조

의 비판적 수용으로서, 플라톤이 타계한 지 이제 2400여년이 되어가는 21세기의 플라톤 연구가가 취할 수 있는 아마도 가장 플라톤의 대화편 저술의도에 합당한 해석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19, 20세기의 플라톤 해석의 동향

플라톤의 전 대화편의 번역을 시도한 현대의 몇 되지 않는 플라톤 연구가에 속하는 슐라이에르막허(F. Schleiermacher)는 플라톤 저작의 독특성인 대화편의 형식에 주목하여 그 때까지 하나의 문학적 장치로서 단지 장식의 구실만을 했던 것으로 대부분 간주되었던 플라톤 대화편의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형식들을 플라톤 저작의 내용이해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강조함으로써 플라톤 해석사에 하나의 새롭고 설득력 있는 해석안을 내놓는다. 그에게 있어 플라톤 대화편의 형식과 내용은 “분리할 수 없으며”(unzertrennlich)(1855, p.14) 이것이 그의 플라톤 해석의 근본적 원리를 형성한다.

하지만 이러한 슐라이에르막허의 플라톤 해석의 원칙은 당시에 헤어만(K. F. Hermann)이 이끄는 “발전론적”(genetic)(Tigerstedt 1977, p.25 f.) 관점에 의해 크게 주목 받지 못한다. 플라톤 철학이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점차적으로 발전되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발전론자”(the Geneticists) (상동 p.25) 들은 슐라이에르막허의 플라톤 해석의 원칙에 주목하는 대신 슐라이에르막허가 주장했던 유일론적 (唯一論的, unitarisch) 관점, 즉 플라톤은 처음부터 하나의 완성된 철학적 사상에서부터 출발하여 이것을 자신의 대화편에 점차적으로 표현해 나갔다는 관점에²⁾ 반기를 들고 나온다. 헤어만에 따르면 플라톤 철학이 발전론적으로 변화되어 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플라톤의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의 철학적 편력 그리고 플라톤 저작에서 발견되어지는 많은 내용적 불일치와 애매성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고

2) Tigerstedt 1977, p.25 참조

한다. 이러한 발전론적 플라톤 해석의 단초는 20세기에 들어서도 플라톤 대화편에 대한 문체적(stylometric) 분석방법이 발달함에 따라 일련의 다수의 연구가들에 의해 크게 공감을 얻게 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반대에 부딪히기도 한다.

헤어만의 플라톤 철학에 대한 발전론적 관점은 예를 들면 20세기 초를 플라톤 철학의 유일론적(唯一論的, unitarisch) 관점으로 장식했던 쇼리(P. Shorey)에 의해 여지없이 비판되어진다. 쇼리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플라톤의 대화편들에서 하나의 통일적인 철학적 사상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이때 그 사상이 발전론적인 철학적 변화의 산물이거나 체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쇼리에 의하면 플라톤 철학은 크게 세 가지 분야, 즉 윤리학, 이데아론 그리고 심리학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고 한다. 그에게 있어 플라톤 윤리학의 주제들은 I) 소크라테스의 파라독스, ii) 덕의 정의(定義), 특히 요청되어지는 최고 학문이나 기술, 행복, 정치적 기술 및 선의 이데아와의 연관 하에서의 규정, iii) 쾌락주의의 문제 그리고 iv) 덕과 행복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심리학의 주제는 i) 영혼의 불멸성, ii) 영혼의 통일성과 기능에 따른 분류, iii) 플라톤의 전기 대화편보다 후기대화편에서 심리학적 탐구가 보다 풍부하고 정밀하게 행해졌다는 일반적 논증 등이다. 이데아론은 쇼리에 의하면 보편자의 표현을 위한 현실적인 길인데, 이것은 형이상학과 관련하여 결정적이고 긍정적인 통찰, 즉 실체적 존재 또는 일반 개념의 객관적 상관체(correlates)가 궁극적인 존재론적 단위들을 이룬다는 것을 표현한다고 한다.

슐라이에르막허의 플라톤 대화편의 형식에 대한 관심은 20세기에 이르러 슈텐젤(J. Stenzel)이나 프리드랜더(P. Friedländer)에 의해 계승되며 플라톤 연구의 한 획을 긋는데,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슈텐젤의 논문 제목 “플라톤 대화편의 문학적 형식과 철학적 내용”³⁾에서 단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프리

3) Stenzel, J. 1956 [1913]. “Literarische Form und philosophischer Gehalt des platonischen Dialoges“. In: *Kleine Schriften zur griechischen Philosophie*. Darmstadt. pp.32-47.

드랜더가 특히 플라톤 대화편의 희극적 요소들을 대화편 해석에 효과 있게 적용한 반면, 슈텐젤은 겉보기에 우연적인 대화자체의 중단이나 질문과 대답의 형식 그리고 대화자간의 오해와 그러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질문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적한다.⁴⁾ 이러한 플라톤 대화편에 특징적인 형식에 관한 관심은 독일어권에서는 메를란(Ph. Merlan)이나 군더어트(H. Gundert)에 의해 불어권에서는 골드슈미트(V. Goldschmidt)와 같은 플라톤 해석자들에 의해 일련의 긍정적 연구 성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유럽 대륙에서 보여지고 있는 20세기 초 중반의 플라톤 대화편의 형식에 대한 관심은 에버트(Th. Ebert, 1974 p.24)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영미권의 플라톤 연구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직은 심화된 연구 주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영미권에서는 오히려 20세기 중반 이후 블래스토스(Vlastos)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된 논리 분석적 플라톤 연구가 특징적이라 말할 수 있는데, 블래스토스에 의하면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의 진술들은 역사적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사상들을 대변하며⁵⁾ 플라톤 자신의 독창적인 철학은 그 자신의 중기 이후의 대화편들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한다.

영미권 플라톤 연구자들에게 플라톤 저작의 문학적 형식이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대략 스트라우스(Leo Strauss)와 그의 제자들의⁶⁾

4) Ebert 1974, p.23 f. 참조

5) 예를 들면 Vlastos는 자신의 논문 *The Unity of Virtues in the 'Protagoras'* (1972)에서 플라톤의 대화편 *프로타고라스*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가 이 대화편에서 논의되는 세 가지 주제, 즉 통일성 명제(the Unity Thesis), 유사성 명제(the Similarity Thesis), 상호조건성 명제(the Biconditionality Thesis)를 주장한다고 한다. Vlastos에 따르면 '통일성 명제'란 정의(正義)(dikaiosynê), 경건(hosiotês), 절제(sôphrosynê), 지혜(sophia)는 동일한 것에 대한 상이한 명칭들이라는 것이고 (Vlastos 1972, pp.418-419 참조), '유사성 명제'란 이러한 개별 덕목들은 서로 그리고 덕 자체와 유사하다는 것이며(상동 pp. 421-422 참조), '상호조건성 명제'란 각 개별 덕목들은 공연(共延, coextensive)의 집합을 형성한다는 것, 즉 어떤 사람이 하나의 덕목을 실현(instantiate)했다면 동시에 그는 다른 덕목들도 가진다는 것이다(상동 p.424 참조).

6) Rosen(*Plato's Symposium*. London, 1968, pp. XI-XXXVIII 참고)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다.

활동에 의해서이다. 스트라우스 학파의 시도, 즉 대화편내의 각 부분들, 문학적 요소들 그리고 희곡의 요소들을 플라톤 대화편 해석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부각시킨 것은 20세기 후반의 영어권의 플라톤 연구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문학적-역사적 플라톤 해석의 시초를 형성한다. 프레스(Gerald A. Press), 그리스월드(Charles L. Griswold), 나이팅게일(Andrea W. Nightingale)로 대표되는 "희곡적-비교적 플라톤 해석(die dramatisch-undogmatische Platoninterpretation)"(졸저 2005, p.3)은 한마디로 플라톤 대화편들을 문학적인 그리고 문학외적인 요소들의 연결체로 보아 그 안에서 하나의 체계적이고 정립되어진 이론을 찾는 것을 거부함을 그 특징으로 한다.⁷⁾ 이 분야의 일련의 개척자로 평가되어질 수 있는 프레스의 경우 현대 플라톤 해석의 전반적인 경향을 “교리적”(dogmatic), 즉 플라톤 대화편 안에서 주로 플라톤의 체계적이고 정립되어진 이론을 찾으려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비판한다. 프레스에 따르면 현대 플라톤 해석의 일반적인 경향인 교리적이고 비희곡적인 플라톤 해석의 특징은 켈러(Zeller) 뿐만이 아니라 발전론적 플라톤 해석자들, 소리와 같은 유일론적 플라톤 해석자들에게서도 발견되며 나아가 블래스토스, 오엔(Owen), 액킬(Ackrill), 윌리엄스(Williams), 아나스(Annas), 바아네스(Barnes) 등과 같은 논리 분석적 플라톤 해석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대의 일련의 교리적-비희곡적 플라톤 해석에 반대하며 프레스는 플라톤 대화편에 대한 세 가지 해석학적 원칙을 주창하는데 그것은 전체주의

7)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이러한 희곡적-비교적 플라톤 해석이 소위 플라톤의 “문자화 되지 않은 이론”(eine ungeschriebene Lehre)을 주장하는 튀빙엔 학파(Tübinger Schule)의 플라톤 해석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Krämer와 Gaiser로 대표되는 튀빙엔 학파의 주장에 따르면 플라톤은 자신이 저술하고 출판 하였던 대화편에서가 아니고 플라톤이 생전에 행했다고 전해지는 구두적 강연에서 자신의 진정한 철학적 이론을 명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튀빙엔 학파의 주장은 달리 희곡적-비교적 플라톤 해석자들은 플라톤의 진정한 철학적 자료는 단지 그의 대화편들이며 그 대화편에서 플라톤의 체계적이고 정립되어진 이론을 찾으려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나 대화편 안에 플라톤이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철학적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다.

(holism), 컨텍스트주의(contextualism) 그리고 유기체주의(organicism)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전체주의(holism)란 플라톤의 각 대화편이 그 자체로서 고유하게 해석되어야하는 단일체라는 것이며, 컨텍스트주의(contextualism)란 예를 들어 플라톤의 시대의 언어, 문화, 과학 등을 함께 고려하며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어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며, 유기체주의(organicism)란 플라톤의 대화편 안에서 언어나 회곡적 구조와 같은 형식적 부분과 문화적 요소나 그 당시 알려진 철학적 이론과 같은 내용적 부분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전체 내용을 구성한다는 원칙이다. 플라톤 대화편의 문학적 형식에 대한 강조는 칸(Ch. Kahn)에 이르러 하나의 역사적, 철학적 연구로 이어지는데 그의 저서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적 대화편* (1996)의 부제인 *문학적 형식의 철학적 사용*이 그의 플라톤 해석의 출발점을 단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플라톤 연구에 있어 그의 저작의 문학적 특징과 역사, 문화적인 뒷배경을 강조하는 플라톤 해석자들과 대조적으로 영국과 독일의 몇몇 플라톤 연구자들은 플라톤 대화편에서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철학적 요소, 즉 대화논증술(dialektikê)을 플라톤 대화편 해석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고 이러한 대화논증술의 분석에 주력한다. 그 대표적인 플라톤 해석자로 스톱스(M. C. Stokes, 1986)와 프레드(M. Frede, 1992)를 들 수 있다.⁸⁾

위에서 개관한 20세기 후반의 두 가지 특징적인 플라톤 해석의 경향들, 즉 플라톤 대화편의 문학적 그리고 역사, 문화적 요소들을 부각시키는 해석의 경향과 대화편의 내적인 요소인 대화논증술을 강조하고 분석하는 데 주력하는 경향은 모두 동시대의 몇몇 플라톤 연구자들에 의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종합되어 고찰되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플라톤 해석자의 하나로 에버트(1974, 1978, 1994, 1999, 2002, 2004), 하이취(E. Heitsch, 1984, 1992, 2000), 블뢰스너(N. Blössner, 1997)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해석자군의 해석학적 틀, 즉 플라톤 대화편의 문학

8) 그 외에도 20세기 중반의 Robinson(1953), 후반의 Stemmer(1992) 등이 있다.

적인 요소와 철학적인 요소를 둘 다 동시에 플라톤 대화편의 해석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간주하는 것이 바로 필자가 3장에서 다루게 될 대화드라마적(dialogdramatisch) 플라톤 해석에 단초를 이루는 해석학적 방법이다.

3. 대화드라마적(dialogdramatisch) 플라톤 해석

1) ‘대화드라마적’이란 개념

신조어인 ‘대화드라마적’이란 말은 2장에서 개관한 19, 20 세기 플라톤 연구의 경향에서 비롯된 말이다. 슐라이에르막허 이후의 현대 플라톤 연구의 경향은 무엇보다도 플라톤이 자신의 저작들의 문학적, 철학적 형식으로 채택한 ‘대화’의 형식을 플라톤 철학의 이해의 한 단초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 때 각 철학자마다의 상이하고 독특한 해석 방법들이 발견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각 철학자들의 플라톤 대화편의 ‘대화형식’에 대한 견해에 따라 크게 두 파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프레드와 같이 ‘대화’의 철학적 형식, 즉 플라톤이 대화편에서 개진하고 있는 철학적 내용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대화논증술의 탐구에 주력하여, 주로 플라톤 대화편의 철학적 요소들의 연구에 중점을 둔 해석자 군이고, 다른 하나는 프레스나 아리에티(Arieti, 1991)와 같이 플라톤의 저작의 문학 장르적 특징을 부각시켜 플라톤 대화편을 주로 문학적인 시각에서 평가하여 해석하려는 연구자 군이다.

이러한 상이한 두 해석자 군이 내세우는 해석학적 관점은 플라톤 작품의 본질적인 두 형식, 즉 문학 장르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형식이 모두 플라톤 저작을 “전체로서”(im Ganzen)(졸저 2005, p.179) 이해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일면적이다. 왜냐하면 한 플라톤의 대화편을 전체로 놓고 본다면 그 안에는 상기한 두 가지 요소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하나의 전체적인 철학적 내용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첫째로 플라톤이 자신의 저작의 전달방식을 굳이 대화의 형식, 나아가 희곡의 형식이 가미된 대화의 형식으로 선택했다는 사실과 둘째로 플라톤 저작의 외적 그리고 내적 대화형식이 다른 철학적 대화편 저술자와 비교해 보았을 때 유일무이하게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설명되어진다.

플라톤은 그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7번째 서한과 소크라테스의 변론(Apologia)⁹⁾을 제외시킨다면 역사상 유래가 없이 자신의 전 저작을 대화의 형식으로 저술한 유일무이한 철학자이다. 이러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위에서 말한 첫 번째 사실의 의미, 즉 플라톤이 대화편이라는 문학적 장르를 선택한 것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다분히 저자의 충분한 의도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두 형식이 동시에 플라톤 철학을 독자에게 전달시키는 또는 두 형식 자체가 플라톤 철학에 포함되는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역사상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자신의 철학적 사상 또는 철학적 전달 내용을 논문(Traktat)의 형식으로 세상에 내놓았다. 이러한 논문 형식이외에도 시나 소설, 성찰(Meditationen), 고백록(Konfession), 수필(Essay) 등 철학적 저술의 문학적 장르는 사실상 다양하다.¹⁰⁾ 그러나 대부분의 철학적 저술들은 상기한 대로 논문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이것은 분명히 “철학”이라는 분야가 가진 일반적 특징에서 유래한다.

“철학”의 개념에 대한 견해는 물론 학자마다 철학적 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철학의 “학문성”(Wissenschaftlichkeit)의 개념, 즉 철학은 학문이며, 또는 학문이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학문성개념을 무엇으로 보느냐가 학자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학문성을 지닌 철학

9) 흔히 소크라테스의 변명으로 번역되었으나 ‘Apologia’의 번역에 대한 박종현 선생님의 적절한 단어선별에 따라 변론으로 번역한다(박종현 2003, p.81 참조).

10) 예를 들면 Parmenides, Empedokles, Lucretius는 시의 형태로, Rousseau는 *Emile*이라는 소설로, Descartes와 Leibniz는 성찰록의 형식으로 Augustinus와 Rousseau는 고백록의 형태로 Montaigne는 수필의 형태로 자신의 철학사상을 피력하였다.

적 사상을 표현하는 철학적 저술들과 한 작가의 체험, 예술적 영감 등을 나타내는 문학적 저술들 간의 최소한의 경계는 일반적 통념으로는 분명해 보인다. 나아가 수학이나 자연과학과의 관련 하에서의 철학의 학문성의 논의는 보다 엄격하게 철학적 저술의 형태를 규정하였으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학적 저술에서 논리적 무모순성, 명백성, 체계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철학적 저술의 특징이 가장 적절하게 표현될 수 있는 철학적 문학 장르는 바로 논문의 형식인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은 이러한 논문의 형식이 아닌 대화의 형식을 자신의 철학적 저술의 문학적 장르로 선택했다. 이러한 남다른 형식에의 선택에는 저자의 의도가 배제될 수 없고 이러한 플라톤의 독특한 선택의 이유는 바로 그 형식자체를 자신의 철학적 사상에 포함시키려고 한 것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¹¹⁾

다른 한편으로 이제는 역사상 플라톤처럼 ‘대화편’의 형식으로 자신의 저작을 내놓은 철학자들을 살펴보자. 이 경우에도 우리는 플라톤처럼 자신의 거의 전 저작을 - 플라톤의 것으로 확실시되는 대화편은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제외하고 26편이다 - 대화편의 형식으로 고수한 철학자는 찾아볼 수 없다. 현재에는 전해져 내려오지 않지만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도 젊은 시절에는 몇 편의 대화의 형식을 띤 저작들을 내놓

11) 보다 명백하고 구체적인 플라톤의 대화형식에의 선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화편 *파이드로스(Phaidros)*에서의 문자주의(Schriftlichkeit)에 대한 비판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대화”의 중요성이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에게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전수한 ‘대화’라는 형식의 중요성이다. 역사적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전후하여 수많은 소크라테스의 추종자들이 생겨나고 특히 그의 생애와 사상, 철학적 방법 등에 관한 저술들이 잇달아 탄생되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Poetica 1447b10-14)*에서 이를 “소크라테스적 저술들”(Sôkratikoï logoi)이라 칭한다. 플라톤의 대화편이 이러한 “소크라테스적 저술들”의 하나로 탄생되었고 이것이 플라톤 당시의 철학적 저술의 한 경향에 대한 추종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나 “소크라테스적 저술들”의 저자들과는 달리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논증술(dialektikê)이 매우 특징적이며, 무엇보다도 이 점에서 다른 “소크라테스적 저술들”의 저자들과는 구분이 된다 (플라톤의 대화편과 다른 “소크라테스적 저술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졸저 2005 pp.63-70 참조).

았지만,¹²⁾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은 모두 논문(Traktat)의 형식을 띤 것이다. 이러한 논문의 형식을 띤 철학적 저술들이 한편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강의용 노트, 즉 일반인들을 위해 출판되어진 저작이 아니라고 추정해보아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철학의 전달형식을 대화형식으로 고수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키케로(Cicero)도 자신의 많은 철학적 저술들을 대화의 형식으로 남겼으나 그 저술이 취하고 있는 대부분의 특징은 거의 연설문과 비슷한 장문(長文)의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진 거의 논문 형식의 대화편이다. 기원후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의 플라톤주의자였던 카이로네이아(Chaironeia) 출신의 플루타르코스(Plutarchos)¹³⁾도 몇 편의 대화편을 남겼지만 그의 다른 저서들 중에는 논문의 형식을 띤 것도 많다. 근대로 내려오면 홉스(Th. Hobbes), 버클리(G. Berkeley), 흄(D. Hume) 등 대화편을 쓴 철학자들이 비교적 많이 발견되지만 이들도 역시 자신의 저서 모두를 대화의 형식으로 쓴 것은 아니다. 즉 대부분의 철학적 대화편의 저자들은 ‘대화라는 형식’을 자신의 저작의 가능한 하나의 형식으로서만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대화형식의 설정을 자신의 철학적 사상의 유일한 전달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거의 모든 자신의 저작을 대화라는 형식으로서 저술하고 있는 플라톤에게 있어서 대화라는 형식은 자신의 철학적 사상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처럼 보인다. 거의 대화라는 형식을 띤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다분히 이질적인 요소를 담지하고 있는 후기 대화편 *티마이오스*(Timaios)도 결국은 대화편의 형식을 형식적으로나마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플라톤이 열

12) DL(5, 22-27)이 추정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146권의 저술 중 19권이 Ross(1955, p.v)에 따르면 대화편인데(Ross는 그러나 DL 5, 22 에는 명기되어 있는, 대화편으로 추정되는 *메넥세노스*(Menexenos)를 빼뜨리고 있다) 이 중 예를 들면 *프로트렙티코스*(Protreptikos)와 *철학에 관하여*(Peri philosophias)는 대화편의 형식을 띤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Wilpert 1960 참조).

13) 기원후 5세기의 아카데미의 수장을 지낸 아테네 출신의 Plutarchos(?-432)와 동명이인이다.

마나 대화라는 형식을 고수하려고 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위에서(p.5) 언급한 플라톤 대화편의 본질적인 두 형식이 플라톤 대화편의 전체적인 철학적 내용을 전달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두 번째 항목, 즉 플라톤 저작의 외적 그리고 내적 대화형식이 다른 철학적 대화편 저술자와 비교해 보았을 때 유일무이하게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우선 대화(dialogos)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19세기말 대화라는 주제를 철학사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대화 어떤 문학적 시도*(Der Dialog, ein literarischer Versuch)에서 저자 루돌프 히르젤(Rudolf Hirzel)은 대화의 고대 희랍어인 'dialogos'를 어원적으로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접두어 dia는 희랍어에서 ...을 통하여(durch)라는 뜻이고, logos는 말(Rede) 또는 논거(Argument)라는 뜻인데 따라서 이 둘을 합성한 dialogos는 “될 수 있으면 편안하게 말로써 시간을 채우는 것 이상을 바라지 않는”(die nichts weiter will, als in möglichst angenehmer Weise durch Reden die Zeit ausfüllen)(Hirzel 1895, p.4) 그런 대화¹⁴⁾ 아니라 논구(論究, Erörterung)와 긴밀히 연관된 대화를 뜻한다고 한다. 이러한 “논구”의 개념은 단순히 주고받는 말이라는 뜻과 구분하여 히르젤에 있어 대화의 중요한 기본특징을 형성한다.

이러한 히르젤의 dialogos라는 단어의 분석은 플라톤의 대화편에 있어 그 형식의 내부적 의미를 규정할 때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다. 플라톤 대화편의 외적 또는 문학적 형식, 즉 대화편의 외부적 구조를 형성하는 오히려 희곡에 흡사한 형식은 플라톤이 자신의 대화편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철학적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담지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면 대화편의 등장인물이라는 문학적 형식의 한 요소는 플라톤이 한 대화편에서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철학적 내용을 성립시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나 본질적으로 그 내용의 직접적 담지자는 아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14) Hirzel(1895, p.5, n.1)에 의하면 이러한 의미의 단어는 희랍어로 dialogos가 아니라 homilia 또는 synousia 라고 한다.

대화편의 내적 형식, 즉 어떤 등장인물들이 대화를 통하여 보여주는 담화의 구조는 그 자체가 저자인 플라톤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의 철학적 내용을 형성한다. 이러한 대화편의 내적인 구조는 조금씩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플라톤에게 있어 하나의 “논구”의 전형적인 형태는 대화논증술(dialektikê)을 통해 비로소 가능하다. 특히 논박(Elenchos)의 특성을 가미한 대화논증술적-논박적 대화(dialektisch-elenktischer Dialog)는 플라톤의 대화편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대화논증술의 한 유형이다.¹⁵⁾ 이러한 논박적 대화논증술의 구조는 플라톤의 대화편만이 갖는 하나의 독특한 내적 형식으로 나아가 역사적으로 대화편을 저술한 다른 철학자들에게서는 발견되어지지 않는 독특한 대화 형식이다.

플라톤 대화편의 외적, 즉 문학적 형식과 관련지어서는 플라톤의 대화편이 다른 철학적 대화편의 저술가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현저하게 문학적으로 정교하고 치밀하며 체계적인 구성양식을 보여준다. 특히 해설적 대화편(erzählende Dialoge)¹⁶⁾의 경우는 다양한 희극적 요소들의 적절한 배치로 저자가 대화의 내용으로만 전달하기 힘든 철학적, 역사적, 대화상황적 뒤 배경을 정교하게 묘사한다. 이러한 플라톤의 문학적 장치의 사

15) 대화논증술의 유형에는 Frede(1992)에 의하면 교수적(敎授的)(didaktisch) 대화논증술, 훈련적(gymnastisch) 대화논증술 그리고 논박적(elenktisch) 대화논증술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교수적 대화논증술이란 말 그대로 일종의 교습적 또는 수업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대화자중 질문자가 진행되는 논증에 책임이 있으며, 즉 다루어지는 명제가 질문자의 것으로 귀속되어진다. 훈련적 대화논증술이란 다루어지는 명제가 대답자의 것이긴 하나, 대답자는 반드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명제를 문제의 명제로 고를 필요는 없다. 즉, 연습이나 훈련을 위한 대화논증술이다. 논박적 대화논증술은 프레드에 의하면 대답자가 반드시 자신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명제를 문제의 명제로 선택해야하며 결과적으로 대답자가 고른 명제와 모순되는 명제가 참으로 증명되면서 대답자가 아포리아(Aporia)에 빠지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한다.

16) 플라톤의 대화편은 각 대화편의 해설자(Erzähler)의 존재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해설자가 없이 직접 대화로 들어가는 드라마식(dramatische)의 대화편이고 다른 하나는 해설자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존재하는 해설적(erzählende) 대화편이다.

용은 근대의 철학적 대화편의 저술가의 하나인 흄과 얼마간 유사한 점을 보이기는 하나¹⁷⁾ 그 정도와 방식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한 구성양식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플라톤 대화편의 내적 또는 철학적 형식과 그것의 외적 또는 문학적 형식의 독특성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20세기의 대비되는 두 플라톤 연구가군의 일면적인 해석방법을 지양(止揚)하게 한다. 이러한 한 쪽으로 치우친 플라톤 해석을 종합하는 해석 방법을 필자는 “대화드라마적”이라고 칭한다. ‘대화적’(dialogisch)이라 함은 다른 아닌 ‘플라톤의 대화편 안에 내적으로 구성되어있는 철학적 요소들, 즉 대화논증술적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하여’라는 의미이고 ‘드라마적’(dramatisch)이란 ‘플라톤 대화편의 문학적, 희곡적 요소들, 즉 등장인물, 무대 장치적 묘사, 해설자의 설명, 기타 문학적 장치 등을 고려하여’ 라는 뜻이다. ‘대화드라마적’(dialogdramatisch)이라 함은 바로 ‘위의 두 가지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어’라는 말이다. 이러한 ‘대화드라마적’ 해석 방법이야말로 플라톤이 본래 의도하였던 대화편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대화드라마적 해석의 원칙들

그러면 이러한 대화드라마적 해석방법을 구체적으로 플라톤 대화편의 이해에 적용하려고 할 때 그것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원칙들은 무엇일까? 본 절에서는 2장에서 간략히 소개하였던 프레스의 세 가지 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3장의 1절에서 고찰한 플라톤 대화편의 독특성을 고려하여 플라톤 대화편의 이해를 위한 세 가지 대화드라마적 해석의 원칙을 확립해 보고자 한다.

17) 다른 철학적 대화편의 저자들은 매우 미미한 형태로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며 그것의 대화편에서의 역할도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 그 중 흄은 철학적 대화편에 문학적 장치를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는 몇 되지 않는 저자들에 속한다(다른 대화편 저술가들의 문학적 장치의 사용에 대해서는 졸저 2005, pp.71-80 참조).

플라톤 대화편을 대화드라마적으로 해석하려할 때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은 **논문식 해석의 지양**이다. 위에서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플라톤은 자신의 저작을 논문이 아닌 대화의 형식으로 저술하였다. 논문의 형식을 가진 철학적 저서에 등장하는 각 진술은 대부분 어려움 없이 그 저서를 쓴 저자의 견해로 간주할 수 있다. 어떤 것이 저자의 견해이고 어떤 것이 저자가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견해인지 독자는 대부분 직접적으로, 즉 그 논문 형식의 글에 표현된 진술의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어려움 없이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대화편의 경우에는 이러한 직접적 이해의 방식이 우선적으로는 배제되어 있다. 여기서 우선적이라 함은 대화편에 등장하여 대화에 참여하는 인물들 중 저자가 빠져있는 경우이다. 대화편인 경우인데도 저자가 등장하는 경우를 우리는 소크라테스(Sokrates)의 제자의 하나인 크세노폰(Xenophon)의 대화편에서 관찰할 수 있다. 크세노폰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어지며 등장하는 경우는 *회상*(Memorabilien, I,3,6-14)¹⁸⁾과 *아나바시스*(Anabasis 3,1,4-8)에서이고 일인칭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오이코노미코스*(Oikonomikos), *향연*(Symposion), *회상*(Memorabilien)에서이다. 키케로의 경우에도 저자가 일인칭으로 등장하는 대화편을 남기고 있다.¹⁹⁾ 이러한 대화편의 경우 독자는 저자의 견해를 직접적인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플라톤의 경우는 이러한 저자의 견해에 대한 직접적인 파악의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다. 7번째 서한을 제외한 전 플라톤 저작에서 플라톤의 이름이 언급된 곳은 단지 세 군데이다. 이 세 곳 모두에서 저자인 플라톤은 단지 이름만이 언급되며 대화 상대자로 등장하지 않는다. *소크라테스의 변론* 34a에서 플라톤의 이름은 아데이만토스(Adeimantos)와 형제관계에 있음으로 해서 언급되어지고 같은 책의 38b에서는 고소된 소크라테스를 벌금을 지불함으로써 구하고자했던 사람들 중 한사람으로 지칭되어진다. 소크라테스의

18) *회상*은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소크라테스에 대한 기억들을 서술한 회고록의 하나인데 본문의 중간 중간에 대화편이 등장한다.

19) 예를 들면 *연설자에 대하여*(De oratore)에서 저자 키케로가 일인칭의 형태로 긴 대화들을 보고한다.

마지막 날을 그린 대화편 *파이돈* 59b에서 플라톤은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어가게 된 날 “병이 나서” 참석하지 못했다고 나온다. 이러한 플라톤의 직접적 대화 참여의 부재는 “플라톤의 익명성”(Platons Anonymität)이라는 주제로 플라톤 연구가들에게 풀어야 할 하나의 과제를 남겨 놓고 있다.²⁰⁾

그럼 저자 자신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플라톤의 대화편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 나가야 할까? 이에 대한 답변은 두 번째 대화드라마적 해석 원칙을 논하며 다루어 보고자 한다. 플라톤 대화편에 대한 두 번째 대화드라마적 해석 원칙은 대화편에 설정되어 있는 **각 철학적, 문학적 요소들에 대한 빠짐없는 고려**이다. 플라톤의 대화편을 더 이상 논문식으로 읽어 나가서는 안 되는 경우, 해석자는 저자의 본래의 의도를 대화편 안에서 추적하기 위해서는, 저자가 자신의 작품 안에 설정해 놓은 각 요소들을 놓치지 않고 고려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때 고려되어야 할 대상은 위에 언급한 대로 크게 철학적 요소와 문학적 요소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철학적 요소 중 첫 번째로 다루어져야 하는 요소는 대화의 기본적 형식인 질문과 대답의 요소이다. 이 두 요소에 대한 고려는 원칙적으로 플라톤의 대화논증술적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지만 일반적으로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어나갈 때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질문과 대답의 요소의 구분과 그 중요성을 지적하기 위해 기원후 2-3세기경에 최초의 철학사를 저술했던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Diogenes Laertius)의 플라톤 해석의 한 단면을 들어보기로 하자.

플라톤은 자신의 확신을 증명했으며, 잘못된 것을 반박하였고, 불분명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판단을 보류했다. 자신의 견해를 그는 네 인물, 즉 소크라테스, 티마이오스, 아테네에서 온 손님과 엘레아에서 온 손님을 통해서 나타냈다. (DL 3,52)²¹⁾

20) 플라톤의 익명성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Press 2000 참조.

21) 필자 번역.

디오게네스가 지칭한 이 네 인물은 플라톤의 대화편들에서 주요 인물로 등장하며 대부분 각 대화들을 이끄는 주 대화 참여자이다. 티마이오스는 대화편 *티마이오스*에서 긴 연설부분을 맡고 있고, 아테네에서 온 손님은 *법률(Nomoi)*에서 각 대화를 이끄는 주 등장인물로, 엘레아에서 온 손님은 *소피스트(Sophistes)*, *정치가(Politikos)*에서 역시 대화를 이끄는 주 대화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한다. 소크라테스는 위에서 언급한 대화편 외의 모든 대화편의 주 대화 참여자의 한사람으로 나타나며 역시 각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 이 네 등장인물을 디오게네스는 플라톤의 대변자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상술한 디오게네스의 해석원칙에 따른다면 다음과 같은 대화편 *파이돈(Phaidon)*의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소크라테스) “그러면 심미아스, 이런 것들은 어떤가? 우리는 올바른 무엇인가(ti dikaion)가 그 자체로(auto) 있다고 말하는가, 아니면 전혀 없다고 말하는가?”

“물론 단연코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무엇인가(kalon ti)와 좋은 무엇인가가 또한?”

“어찌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자네는 일찍이 이와 같은 것들 중의 어느 것을 자네 눈으로 본 적이 있는가?”

“결코 없습니다.” (파이돈 65d4-10)²²⁾

이 부분은 흔히 말하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올바름 자체, 아름다움 자체, 그리고 좋음 자체가 있음을 언급하고 이러한 형상 또는 이데아들은 우리의 감각의 하나인 시각을 통해 지각되어질 수 없음을 언명한다. 이 부분을 DL에 따라 해석하면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플라톤의 대변자이다. 물론 이러한 DL의 견해도 대화드라마적 해석 원칙에 따르면 큰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만약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해도 우리는 DL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22) 박종현(2003, pp.294-295) 번역.

플라톤은 묻고만 있는 것이 아닌가?”

“질문”(eine Frage)이 하나의 “주장”(eine Behauptung)이 될 수 없음은 이미 현대 논리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프레게(G. Frege)에 의해 확실히 되었다. 프레게는 자신의 논문 *사유명제*(Der Gedanke)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질문을 할 때 우리는 하나의 불완전한 문장을 발설한다. 그 문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보충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의 참된 의미를 얻을 수 있다 (...) 질문문과 주장문은 동일한 명제(Gedanke)를 포함하지만 주장문은 조금 더 많은 것을, 즉 바로 주장을 포함한다. (프레게 1986, p.35)²³⁾

이러한 질문과 주장의 분명한 차이에 대해서는 이미 플라톤의 대화편 *고르기아스*(Gorgias)에서 소크라테스의 지적에 의해 잘 알려져 있다.²⁴⁾ 즉 플라톤에게도 이미 이 두 가지 부류의 문장들은 의식되어 그 차이가 분명히 인정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제 우리는 플라톤의 대화편 곳곳에서 발견되는 소크라테스의 질문들을 더 이상 소크라테스의 주장, 나아가 그의 이론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다. 플라톤의 대화편 *프로타고라스*에서 임의로 설정한 익명의 대화 상대자에게 소크라테스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명제를 주장하는 자는 질문자가 아니라 대답자인 것이다.²⁵⁾

23) 필자 번역

24) *고르기아스*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대화 상대자 폴로스(Polos)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은 지금 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주장(logos)의 시작입니까?”(*고르기아스* 466b1-2). 또 그 다음 대화에서 소크라테스는 비슷한 지적을 한다. “폴로스, 나는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이 당신 자신이 나에게 말하고 당신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또는 당신이 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인지 언제나 의심스럽소”(*고르기아스* 466c3-5)(필자 번역).

25) “다른 모든 것은 당신이 모두 올바르게 이해한 것 같은데, 만약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것을 내(sc. 소크라테스)가 주장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신은 잘못 들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타고라스가 그것에 대해 답변을 주었고 나는 단지 묻기만 했습니다”(*프로타고라스* 330e7-331a1)(필자 번역).

대화드라마적 플라톤 해석의 두 번째 원칙인 각 철학적, 문학적 요소들에 대한 빠짐없는 고려를 위해 두 번째로 다루어져야 할 철학적 요소는 대화논증술적 대화의 구성요소들이다. 플라톤의 대화편 안에서 소크라테스에 의해 이끌어지는 이 대화논증술적 대화들은 잘 관찰해보면 일련의 규칙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규칙성은 아리스토텔레스의 *Topik*의 8권에서 다루고 있는 대화논증술의 구체적 사용을 위한 일련의 규칙들과 상당한 일치점을 보인다.²⁶⁾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대화논증술적 대화에 있어 질문의 기본형식은 그 질문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Topik* VIII 2, 158a16-17 참고). 예를 들면 “현재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입니까?”와 같이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되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지, “현재 독일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예1]와 같이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되어질 수 없는 질문이어서는 대화논증술적 대화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²⁷⁾ 이러한 대화논증술적 질문의 형식은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가 대화논증술적 대화를 이끌 때에 어디서든지 발견된다.²⁸⁾ 이러한 기본적인 대화논증술적 질문 형식의 파생된 형태로서 대화논증술적 질문 형태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Topik* VIII 2, 158a19-20에서 들고 있는 “좋은이란 이런 의미에서 말해진 것인가 또는 저런 의미에서 말해진 것인가?”의 예와 같은 선택질문(Alternativfrage; Entscheidungsfrage)의 형식이다. 이러한 선택질문의 기

26) 아리스토텔레스의 *Topik* 8권 1, 155b - 5, 159a에서 다루고 있는 대화논증술의 사용 규칙들이 플라톤의 대화편을 그 모델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졸저 2005, pp.153-157 참조.

27) 물론 실질적으로 플라톤의 대화편들 안에서 실행되고 있는 대화논증술적 대화들은 다양한 형태의 질문 형식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크게 상기한 대화논증술적 질문의 두가지 기본적 형태와 [예1]이 보여주고 있는 “무엇-질문(Welche-Frage)”의 형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대화논증술적 논의의 과정에 포함되는 진술들을 다루지는 않고, 예를 들면 질문자가 이해하지 못한 항목을 되묻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28) 예를 들면 *파이돈* 70e6-71a11; *프로타고라스* 332a4-332c9; *국가* 332e6-333a9 등등.

본형식은 “x는 P인가, 또는 not P인가?”를 기본형식으로 “x는 P인가, 또는 Q인가?”의 예외적인 형식으로 나누어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대화는 증술의 두 가지 기본형태의 질문형식, 즉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되어 질 수 있는 질문 형식과 선택질문의 형식은 대화논증술적 대화에 있어 다루어지는 명제를 대답자가 주장한 것으로서 확증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한 대화논증술적 질문형식들은 플라톤 대화편을 대화드라마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꼭 잡고 넘어가야 할 철학적 요소들의 하나이다.²⁹⁾

대화드라마적 플라톤 해석의 두 번째 원칙인 각 철학적, 문학적 요소들에 대한 빠짐없는 고려를 위해 다루어야 할 문학적 요소들은 대화편에 등장하는 대화자 및 등장인물,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해설적 대화편(erzählende Dialoge)인 경우 해설자 및 청취자, 해설자의 대화 상황 설명, 신화, 비유와 같은 대화편 안에 설정된 다른 문학적 장르 및 아이러니와 같은 문학적 기법 등이다. 이 중 대화자나 등장인물 그리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즉 도시나 지역은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것이므로 특히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들과의 연관 하에서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³⁰⁾

이제 마지막으로 대화드라마적 플라톤 해석의 세 번째 원칙을 살펴볼 것이다. 이 세 번째 원칙이란 **각 대화편은 완결된 일회적인 통일적 전체**라는 것이다. 이 세 번째 원칙은 플라톤의 대화편이 모두 허구적인 철학적, 문학적 작품이라는 데에서 출발한다. 각 대화편은 플라톤이라는 저자에 의해 탄생된 허구이며, 비록 대화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역사적 인물이며,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갖는 것이라고 해도, 이것은 결국 플라톤이라는 저자에 의해 재구성되고 창조되어진 것으로 다루어져야 한다.³¹⁾ 이러한 출발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우선 플라톤의 대화편

29)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졸저 2005 pp.157-162 참조.

30) 플라톤 대화편의 문학적 요소들이 철학적 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졸고(미출판원고) “플라톤 대화편 분석에 있어 문학적 요소들의 역할” 참조.

31) 다른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에 의해 저술되어진 “소크라테스적 저술들”(Sôkratikoilogoi)도 Gigon (1979, p.178)이나 Nickel(1979, pp.109-111)에 따르면 허구적 작품들로 간주되어진다.

안에서 묘사되고 있는 소크라테스는 역사적으로 생존했던 소크라테스와 구분되어져 고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입각해보면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를 역사적 소크라테스와 동일시하는 블래스토스와 같은 해석자의 견해는³²⁾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나아가 각 대화편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의 상이성 또는 불일치성도 이 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각 대화편을 완결된 일회적인 통일적 전체로 볼 때 해결되어지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한 대화편에서 다룬 철학적 내용과 또 다른 대화편에서 다룬 철학적 내용이 상이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들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어떻게 해결되어질 수 있는지 국가편에 나오는 참주에 대한 견해와 벌률편에 나오는 참주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예로 들어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각각 이상국가 또는 최상의 국가 건설을 염두에 두고 전개되는 두 대화편의 내용중 국가편에 나오는 참주(또는 참주정체)에 대한 견해와 벌률편에 나오는 참주(또는 참주정체)에 대한 견해는 매우 큰 대조를 이룬다. 먼저 국가편 8권에서는 네 가지 정치형태, 즉 명예지상(至上) 정체³³⁾, 과두 정체, 민주 정체 그리고 참주 정체에 대한 비판(국가 VIII, 562a-569c)이 나오는데 소크라테스와 글라우콘(Glaukon)이 도달한 참주에 대한 견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네는 참주를 친부 살해자로, 그리고 고약한 노령의 부양자로 말하고 있는 걸세.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여겨지다시피, 이것이야말로 이미 정평이 난 참주 정체이며, 또한 [연기를 피해서 불에 뛰어든다는] 속담 말미따나, 민중이 자유민들의 구속이라는 연기를 피해서 노예들의 전횡이라는 불에 뛰어드는 셈이지. 저 많은 ‘철 이른 자유’ 대신에 가장 힘들고 가장 가혹한 노예들의 종살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서 말일세.” 내(sc. 소크라테스)가 말했네. “바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sc.글라우콘)가 말했네. (국가 VIII, 569b6-c5)³⁴⁾

32) 예를 들면 각주 5) 참조

33) 박중현 1997, p.505 참조

34) 박중현 번역 (1997, p.561).

이와 같은 참주에 대한 극단적인 비판은 *법률편*으로 가면 완전히 그 모습을 바꾼다. *법률편* 4권 709d-711d에서 대화 참여자인 아테네에서 온 손님과 클라이니아스(Kleinias)에 의해 참주는 최선의 국가를 현실화할 수 있는 입법자(nomothetês)로 묘사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참주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해석 되어질 수 있을까? 두 대화편 모두 플라톤에 의한 것임에는 분명하다. 우리가 대화드라마적 해석의 마지막 원칙인 “각 대화편은 완결된 일회적인 통일적 전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상기한 대로 이 문제를 적절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 즉 우리는 먼저 각 대화편에 설정된 문학적 장치를 살펴보고 각 대화편이 상이한 대화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국가편*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은 피레아스(Piraeas)³⁵로 시라쿠스(Syrakus) 출신의 거주외국인(Metöke) 케팔로스(Kephalos)의 집이다. *국가편*에 등장하는 케팔로스의 두 아들 폴레마르코스(Polemarchos) (327b1 ff.), 리시아스(Lysias)(328b4)는 기원전 404년의 30인 참주정치의 희생자들이다. 케팔로스의 이 두 아들 외에도 *국가편*에 등장하는 니케라토스(Nikeratos) (327c1)와 클라이토포(Kleitophon)(328b7) 역시 30인 참주정치의 희생자들이다.³⁶ 다른 상세한 역사적 사실을 복합적으로 연결시키지 않더라도³⁷ 우리는 여기서 소크라테스와 글라우콘의 대화 상황을 한마디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즉 두 대화자는 참주나 참주정체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청자들 사이에서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저자 플라톤 자신이 지지할 런지도 모르는 참주정체라고해도 이러한 참주와 대립적 관계에 있는 등장인물 사이에서는 참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대화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비추어질 것이다. 이와 대조적

35) 플라톤 원문 표기는 Peiraieus(*국가* I, 327a1)이다. 플라톤 당시 상업과 민주정치의 요새로 유명하였다(Vidal-Naquet 1993, p.22 참조).

36) 이 인물들에 대한 상세한 역사적 사실과 관련하여 Ebert 2004, pp.100-101 참조.

37) 예를 들면 대화편의 저자 플라톤의 참주정치 또는 참주들과의 관계, 예를 들면 시라쿠스의 디오니시오스 1세(Dionysios I.)와의 관계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7번째 서한 326d-327b 참조).

으로 *법률편*의 상황은 매우 비역사적이다. 더군다나 주대화자로 등장한 아테네에서 온 손님은 플라톤 대화편의 각 등장인물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뒤 배경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는 최상의 국가의 실현을 위한 입법의 조건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대화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플라톤 대화편을 하나의 완결되어진 일회적인 통일체로 볼 때 우리가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각 대화편 간의 불일치하는 요소나 내용 등을 적절하게 해석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 번째 원칙은 물론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탄생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플라톤 대화편이 가지고 있는 허구적 특성을 부각함으로써 그리고 각 대화편이 일회적인 통일체이어서 다루어지는 철학적 내용을 해당되는 대화편에 설정되어있는 대화상황 안에서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하게 해석되어지리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4. 나오는 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19, 20세기 플라톤 연구 동향의 대략적 파악을 출발점으로 20세기 후반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플라톤 대화편에 대한 문학적, 희곡적 그리고 역사적 탐구에 초점을 맞추고 플라톤 대화편의 철학적 형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놓은 성과를 결합시켜 언제나 논란거리로 등장하는 주제, “플라톤,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작은 대답을 내놓았다. 그것은 “대화드라마적 해석”이라 칭해질 수 있는데, 플라톤 대화편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 즉 문학적, 철학적 독특성을 직시하고 이러한 두 특징의 정확한 분석과 활용이야말로 플라톤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관점이다.

전해오는 어떤 일화에 의하면 플라톤은 자기생애의 마지막 꿈에서 백

조로 태어났다고 한다. 그 백조는 나무와 나무사이를 훨훨 날아다니며 자신을 잡으려는 사냥꾼을 비웃었다고 한다. 대략 기원후 6세기의³⁸⁾ 플라톤 연구가였던 올림피오도로스(Olympiodoros)³⁹⁾에 의하면 심미아스(Simmias)라는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이 꿈을 플라톤이 어떤 해석자의 노력에서도 멀어지고 싶어 하는 표시로 해석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화가 예견하고 있는 것은 플라톤이 이미 동시대에서부터 그 자신의 철학사상을 파악하기 힘든 철학자의 한 사람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플라톤 철학의 난해성은 무엇보다도 그의 대화편의 형식에서 기인한다. 외적으로 대화편을 구성하는 문학적 장치들과 내적으로 각 대화들안에 구성되어 있는 철학적 형식들이 플라톤 대화편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는 것이다. 위에서 고찰한 대화드라마적 해석방법은 플라톤 대화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두 가지 근본적인 형식들을 분석하여 그의 대화편을 실제로 읽어 나갈 때 따라야할 원칙들을 제공하고 있다. 철학적 형식으로서의 대화내의 대화논증술적 구조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문학적 형식으로서의 각 대화편의 회곡적 요소들, 대화 외적인 역사적 사실들, 대화편 안에 설치된 다른 문학적 장르인 신화나 비유같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 대화드라마적 해석방법은 그 나름대로의 지침서를 제공한다. 플라톤이 철학자이고 그가 쓴 대화편이 철학적 저술이라고 해서 그의 대화편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학적, 역사적 요소를 간과하지 않는다. 위에 언급했던 심미아스가 이러한 플라톤 대화편의 독특성을 눈치챘더라면 그는 충분히 플라톤이라는 백조를 잡으러 나설 수 있었을 것이다. 플라톤이 타계한지 이제 2353/4년이 되어가는 지금 대화드라마적 해석 방법은 플라톤이라는 백조를 사냥하러 나선다. 우리의 목적은 더군다나 살아있는 백조를 잡는 것이다.

38) 올림피오도로스의 생존시기에 대해서는 Tarrant 1998, p.3 참조

39) Olympiodoros, *첫 번째 알키비아데스에 대한 주석서 2*, 155-162(Westerink 1956, p.6) 참조

참고문헌

I. 원전, 번역서, 해설서

1) Platon

플라톤 대화편의 희랍어 원전은

Burnet, John (Hg.). 1900-1907. *Platonis Opera*. 5 Bde. Oxford 를 따름.

박종현 (역주). 1997. 『플라톤의 국가』. 서광사.

_____ (역주). 2003. 『플라톤의 네 대화편: 에우티프론,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파이돈』. 서광사.

Ebert, Th. (übers. u. kom.). 2004a. *Platon: Phaidon*. Platon Werke, Bd. I 4. Göttingen.

Krautz, H. W. (übers.). 1987. *Platon: Protagoras*. Stuttgart.

Manuwald, B. (übers. u. kom.). 1999. *Platon: Protagoras*. Göttingen.

Rufener, R. (übers.). 1991. *Platon: Der Staat*. München.

Schleiermacher, F. (übers.). 1855. *Platon: Werke I*. Berlin.

_____ 1991. *Platon: Nomoi*. Griechisch und deutsch. Hrsg. v. K. Hülser, ergänzt durch Übersetzungen von F. Susemihl u.a. Frankfurt a. M.

_____ 1983. *Platon: Werke in acht Bänden*. Bd. 5: *Phaidros, Parmenides, Briefe*. Griechischer Text von L. Robin, A. Diès und J. Souilhé. Deutsche Übersetzung von F. Schlerermacher und D. Kurz. Darmstadt.

2) 고대 저자들

Bekker, Immanuel (Hg.). 1831. *Aristotelis Opera*. 2 Bde. Berlin.

Bux, E. (Hg. u. übers.). 1956. *Xenophon: Die sokratischen Schriften. Memorabilien, Symposion, Oikonomikos, Apologie*. Stuttgart.

- Fuhrmann, M. (übers.). 1982. *Aristoteles: Poetik*. Stuttgart.
- Giannantoni, G. (Hg.). [SSR]. 1990. *Socratis et Socraticorum reliquiae*. Vol. 1, 2.
- Jürß, F. (Hg. u. übers.). 1998. *Diogenes Laertios: Leben und Lehre der Philosophen*. Marcovich, M. (Hg.). [DL]. *Diogenis Laertii Vitae philosophorum*. Vol. 1. Stuttgart, Leipzig. 1999.
- Merklin, H. (Hg. u. übers.). 2001. Marcus Tullius Cicero: *De oratore. Über den Redner*. Stuttgart.
- Reich, K. (Hg.). 1967. *Diogenes Laertius: Leben und Meinungen berühmter Philosophen*. Hamburg.
- Rolfes, E. (übers.). 1968. *Aristoteles: Topik (Organon V)*. Hamburg.
- Ross, W.D. (Hg.). 1955. *Aristotelis Fragmenta Selecta*. Oxford.
[Soph. El.]. 1958. *Aristotelis Topica et Sophistici elenchi*. Oxford.
- Tarrant, H. et al. (Hg.). 1998. *Olympiodorus: Commentary on Plato's Gorgias*. Leiden, Boston, Köln.
- Westerink, L. G. (Hg.). 1956. *Olympiodorus: Commentary on the First Alcibiades of Plato*. Amsterdam.

3) 그 외 저자들

- Berkeley, George. 1991. *Drei Dialoge zwischen Hylas und Philonous*. Hrsg. v. W. Breidert. Hamburg.
- Frege, G. 1986. *Logische Untersuchungen*. Hrsg. v. G. Patzig. Göttingen.
- Hobbes, Thomas. 1992. *Dialog zwischen einem Philosophen und einem Juristen über das englische Recht*. Hrsg. v. B. Willms. Weinheim.
- Hume, David. 1980. *Dialoge über natürliche Religion*. Hrsg. v. G. Gawlick. Hamburg.

II. 이차문헌

1) Platon

- 김 진. 2006. “전통적 플라톤 해석의 철학사적 기원”. 『서양고전학연구』 제25집.
- Arieti, J. A. 1991. *Interpreting Plato. The dialogues as drama*. Maryland.
- Blössner, N. 1997. *Dialogform und Argument. Studien zu Platons Politeia*. Mainz, Stuttgart.
- Ebert, Th. 1974. *Meinung und Wissen in der Philosophie Platons*. Berlin.
- _____ 1978. Platon - ein Verächter der Vielen? In: *Vernünftiges Denken*. Hrsg.v. J. Mittelstraß/ M. Riedel. Berlin. S.124-147.
- _____ 1994. *Sokrates als Pythagoreer und die Anamnesis in Platons Phaidon*. Mainz, Stuttgart.
- _____ 1999. Der fragende Sokrates, Überlegungen zur Interpretation platonischer Dialoge am Beispiel des *Menon*. In: *Philosophiegeschichte und logische Analyse*. 2. S. 67-85.
- _____ 2004. Platon als philosophischer Dramaturg, Bemerkungen zu Platons *Politeia*. In: *Gesammelte Aufsätze*. Bd. II: *Zur Philosophie und ihrer Geschichte*. Paderborn. S. 93-111.
- Frede, M. 1992. Plato's arguments and the dialogue form, in: *Oxford studies in ancient philosophy*. Supplementary Vol.: *Methods of interpreting Plato and his dialogues*. Hrsg. v. J. C. Klagge/ N. D. Smith. Oxford. S. 201-219.
- Friedländer, P. 1928. *Platon*. Bd. 1: *Eidos, Paideia, Dialogos*. Berlin, Leipzig.
- _____ 1964. *Platon*. Bd. 2: *Die platonischen Schriften. Erste Periode*. Dritte verbesserte Auflage. Berlin.
- Gaiser, K. 1968. Platons esoterische Lehre. In: *Gnosis und Mystik in der Geschichte der Philosophie*. Hrsg. v. P. Koslowski. Zürich, München. S. 13-40.
- Goldschmidt, V. 1963 [1947] *Les Dialogues de Platon, Structure et méthode dialectique*. Paris.

- Griswold, C. L. 1988. *Platonic writings, Platonic readings*. New York.
- Gundert, H. 1968. *Der platonische Dialog*. Heidelberg.
- Heitsch, E. 1984. *Willkür und Problembewußtsein in Platons Kratylos*. Mainz.
- _____ 1992. *Wege zu Platon. Beiträge zum Verständnis seines Argumentierens*. Göttingen.
- _____ 2000 *Beweishäufung in Platons Phaidon*, Göttingen.
- Hirzel, R. 1895. *Der Dialog. Ein literarhistorischer Versuch*. Erster Teil. Leipzig.
- Kahn, C. H. 1996. *Plato and the Socratic dialogue. The philosophical use of a literary form*. Cambridge.
- Kim, Jin. 2005. *Poiesis als Logos. Eine historische und hermeneutische Untersuchung zur Form der platonischen Dialoge*. Aachen.
- Krämer, H. J. 1959. *Arete bei Platon und Aristoteles. Zum Wesen und zur Geschichte der platonischen Ontologie*. Heidelberg.
- Merlan, Ph. 1939. Platos Form der philosophischen Mitteilung. *Hermaion* fasc. 10, Leopoli. Die erweiterte englische Fassung in: *Journ. of the Hist. of Ideas* VIII. 1947. S. 406-430.
- Nightingale, W. 1995. *Genres in dialogue. Plato and the construct of philosophy*. Cambridge.
- Press, G. A. 1993 (Hg.). *Plato's Dialogues*. Maryland.
- _____ 2000 (Hg.). *Who speaks for Plato?, Studies in Platonic anonymity*. Lanham, Boulder, New York, Oxford.
- Robinson, R. 1953 [1941]. *Plato's earlier Dialectic*. Oxford.
- Rosen, S. 1987 [1968]. *Plato's Symposium'*. New Haven, London.
- Shorey, P. 1980 [1904]. *The unity of Plato's thought*. New York, London.
- Stemmer, P. 1992. *Platons Dialektik. Die frühen und mittleren Dialoge*. Berlin, New York.
- Stenzel, J. 1956 [1913]. Literarische Form und philosophischer Gehalt des platonischen Dialoges . In: *Kleine Schriften zur griechischen*

Philosophie. Darmstadt. S. 32-47.

Stokes, M. C. 1986. *Plato's Socratic conversations. Drama and dialectic in three dialogues*. London.

Strauss, L. 1964. *The city and man*. Chicago.

Tigerstedt, E. N. 1974. *The decline and fall of the Neoplatonic interpretation of Plato*. Helsinki.

_____ 1977. *Interpreting Plato*. Stockholm.

Vidal-Naquet, P. 1993. *Athen - Sparta - Atlantis. Die griechische Demokratie von außen gesehen*. Bd. 1. Aus dem Französischen übersetzt v. A. Knop. München.

Vlastos, G. 1972. The unity of the virtues in the *Protagoras*. In: *The review of metaphysics*. 25. S. 415-458.

_____ 1973. *Platonic studies*, Princeton.

_____ 1983. The Socratic Elenchus. In: *Oxford studies in ancient philosophy*. Vol.1. S. 27-58.

_____ 1991. *Socrates: Ironist and moral philosopher*. Cambridge.

_____ 1995. *Studies in Greek philosophy*. Vol. II: *Socrates, Plato, and their tradition*. Hrsg.v. D. W. Graham. Princeton.

2) 그 외 저자들

Gigon, O. 1979 [1947]. *Sokrates: Sein Bild in Dichtung und Geschichte*. Bern, München.

Nickel, R. 1979. *Xenophon*. Darmstadt.

Wilpert, P. 1960. The fragments of Aristotle's lost writings. In: *Aristotle and Plato in the mid-fourth century*. Hrsg. v. I. Düring/ G. E. L. Owen. Göteborg. S. 257-264.

Zeller, E. 1963 [1921]. *Die Philosophie der Griechen in ihrer geschichtlichen Entwicklung*. Bd. 2-2: *Aristoteles und die alten Peripatetiker*. Darmstadt.

Wie soll man Platon lesen? -aus Platonstudien in den 19. und 20. Jahrhunderten-

Jin, Kim

Seit Platons Zeit wurden seine Dialoge von zahlreichen Philosophen auf vielfältige und verschiedene Weise interpretiert. Der Grund dafür hat einerseits mit Vielfalt und Verschiedenheit der historischen, kulturellen und sozial-politischen Hintergründe jeder Interpret zu tun. Er hat andererseits mit dem Problem der Interpretation platonischer Dialoge zu tun, das sich in anderen philosophischen Schriften nicht findet. Platon hat die Dialoge geschrieben, die eine literarische Form haben, die seine zeitgenössische Literatur wie Tragödie und Komödie zeigt. Die Frage, wie man die philosophische Schrift lesen soll, die eine literarische Form "Drama" hat, beinhaltet in der Tat ein bedeutsames hermeneutisches Problem.

Die vorstehende Arbeit setzt sich mit diesem Problem auseinander, indem sie sich mit den wichtigen hermeneutischen Platon-Forschungen in den 19. und 20. Jahrhunderten befasst. Dabei wird versucht, eine Interpretation zu finden, die Platon gerecht ist. Diese Interpretation wird als "dialogdramatisch" genannt, weil ein philosophisches, d.h. ein dialogisches und ein literarisches, d.h. ein dramatisches Element zusammen für die Interpretation der platonischen Dialoge unentbehrlich sind.

Key Words: Platon, Platonstudien, Interpretation, Dialog, der sokratische Dialog, Dialektik, dialogdramatisch, Elenchos, literarische Form.

김 진 e-mail : jinkim16@hotmail.com